

2014 GSWFF Artist Program 화요화요

광주 통기타음악의 산실 사직골  
한국 포크음악의 중심지로 부상  
**광주 사직포크음악제 열린다**

양희은 소리모아 딕펄스

23일 오후 6시30분~9시 사직공원 옛 수영장에서

청바지·생맥주·통기타로 대변되는 1970~80년대, 대한민국은 포크 음악의 전성기였다. 광주 음악계도 마찬가지였다. 소리모아의 '저녁 무렵' 등 사직공원 주변에서 음악 활동을 하던 이들이 부른 노래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고 지역 작곡가들이 만든 곡들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만준의 '모모', 하성관의 '방방방', 김원준의 '바위섬' 등이 대표적이다.

사직공원 언덕길에는 지금도 포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곳 있다. 가수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기타 치고 함께 노래하며 추억을 만드는 곳이다. 사직공원에서는 또 지역 음악인들의 작은 공연들이 꾸준히 열려왔고, 사직골 포크음악인으로 구성된 사직음악협의 회도 조직됐다.

사직공원 일대를 명실상부 한국 포크 음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축제가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광주시가 '광주사직포크음악제'를 개최한다. 양 기관이 절반씩 부담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내외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대규모 콘서트와 창작 포크 경연대회가 메인

양희은·김원중·중 백악계 등  
국내외 정상급 12개 팀 참가  
'화요화요포크데이' 행사도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다양한 포크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콘서트 '화요화요 포크데이'가 여섯 차례 진행된다. 단발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포크 음악 붐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광주 사직포크음악제 메인 공연은 오는 23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사직공원 옛 수영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크가수 양희은을 비롯해 소리모아(박문숙), 한보리, 김원중, 하성관, 자전거 탄 풍경, 딕펄스, 어쿠스틱폴라보, 바닥프로젝트와 제프리 찰스(미국), 백악계(중국), 아케보시(일본) 등 국내외 정상급 가수 12팀이 참여한다.

본 공연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된다. 사직음악협의 회의 공연, 거리 공연, 디제이 공연, 포크역사 사진전, 수공예 체험, 타악기 및 전자악기 체험 등이 열린다.



한보리

이에 앞서 18일에는 '사직국제제류타운 활성화 및 광주포크음악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가수 김원중과 가수네트워크 박준홍 대표가 '광주 포크음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대구 김광석 길'을 기획한 인디 053대표 이정원 대표, 지역가수 오영목, 배창희씨 등이 함께 이야기한다.

9~10월 모두 6차례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1층 영상관(옛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리는 '화요화요 포크데이'는 매주 화요일 가수들이 포크 음악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9월16일 국소남과 별밤 이야기를 시작으로, 박창근&박강수(9월23일), 김두수&최고은(10월7일), 이정선밴드(10월14일)의 공연이 이어진다.

9월 30일과 10월 21일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크 영 배틀'(참가 신청 062-610-2433)이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참가신청 계기, 선곡 이유 등을 적어 제출하면 무대에 설 수 있다.

사직 포크 컨테스트는 아티스트들의 포크 경연대회다. 대상 1000만원 등 모두 2000여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온라인 예선과 광주 예선을 거쳐 오는 10월 25일 본선 경연이 펼쳐진다.

광주사직국제포크음악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gswff.git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산동'

'마을의 추억' 빛과 영상의 드라마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 전  
20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여러겹으로 만들어진 수제 스크린에 빔 프로젝트 빛이 투사 된다. 어두컴컴한 전시장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기억 속 목포 달동네의 모습이 이리저리 떠오른다.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씨가 오는 20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Inner Dream-서산동'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박씨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목포의 달동네 서산동의 흔적을 담은 영상작

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오랜 시간과 기억이 축적된 삶의 공간을 영상에 담은 뒤 감성을 붙여 넣어 익숙하지만 낯선 '영상 마을'을 만들었다.

작품은 기계적인 빛과 영상으로 잊혀져가는 마을의 추억 속을 거닐게 한다.

박씨는 그동안 가상으로 재현돼 온 실적으로 보이는 영상 풍경을 통해 사유와 성찰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다.

박씨는 목포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2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청년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의 062-676-8986. /김정민기자kki@kwangju.co.kr

여성, 인문학에서 길을 찾다

광주여성새로일하기본부 22일~12월 5일 수완지구 우산신협

광주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가 인문학 강의를 시작한다.

'여성, 인문학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격주 금요일(오후 2시~4시 수완지구 우산신협 5층) 모두 8강좌가 마련됐다. 결혼과 함께 자신의 존재가 가려져 버린 우리 시대 여성들이 심리, 경제, 문화, 페미니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레시피를 재구성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강의다.

9월16일 국소남과 별밤 이야기를 시작으로, 박창근&박강수(9월23일), 김두수&최고은(10월7일), 이정선밴드(10월14일)의 공연이 이어진다.

첫 강연자는 정의석 미래학습센터 소장이다. 정 소장은 '열등감이란'을 주제로 정신분석에서 배우는 자기 성장의 원

리, 나를 성장시키는 열등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윤영선(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9월 26일, 10월 10일)씨는 '돈의 철학'이라는 제목 아래 '워킹 푸어의 원인과 대안, 세계 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심옥숙(전남대 강사)씨가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 '가족의 의미'(10월24일·11월7일)를 되새겨 보며 김경례(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 연구교수)씨가 '여성으로 산다는 것'(11월21일·12월 5일)을 주제로 강연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1577-291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 오연택·조사무엘 공동 2위

광주내셔널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우암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2회 광주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 입상자가 확정됐다.

7~9일 일까지 열린 1, 2차 예선 및 본선 경연 결과 1등상은 수상자를 내지 못한 대신 오연택(서울대 음대 재학), 조사무엘(연세대 음대 졸업)씨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두 사람은 우암문화재단이 수여하는 특별상도 함께 받았다.

입, 신지혜(독일 프라이부르크 음대 재학)씨가 차지했으며 5위 강보영(이화여대 대학원 재학), 6위 임민경(홍익대), 7위 김규리(독일 뉘른베르크 음대 재학) 씨 모두 7명이 입상했다.

한편 광주내셔널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후 국내외 협연 등의 연주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연주자로서 신이은씨가 선정됐다.

또 공동3위는 신이은(서울대 음대 졸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리정문점

**착한 산수정**

한분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약오리  
오리구이  
오리주물럭

목포시 미향로 21(하당 우미5차 부근) T (061)281-5231

50년 전통의 맛 **원조 나죽곰탕**

국내산(한우)

• 곰탕	8,000
• 특 곰탕	10,000
• 수육곰탕	10,000
• 육회비빔밥	7,000
• 육회	30,000
• 수육	중 20,000 대 30,000

고추가루 : 국내산, 쌀 : 국내산, 배추김치 : 배추(국내산)

나주에서 직접 전수한 맛의 명품

**원조 나죽곰탕**

Tel. (061) 287-8884  
Mobile. 010-2631-3336  
대표구 회 연

목포시 옥암동 1248-4(옥암푸르지오APT 건너편)